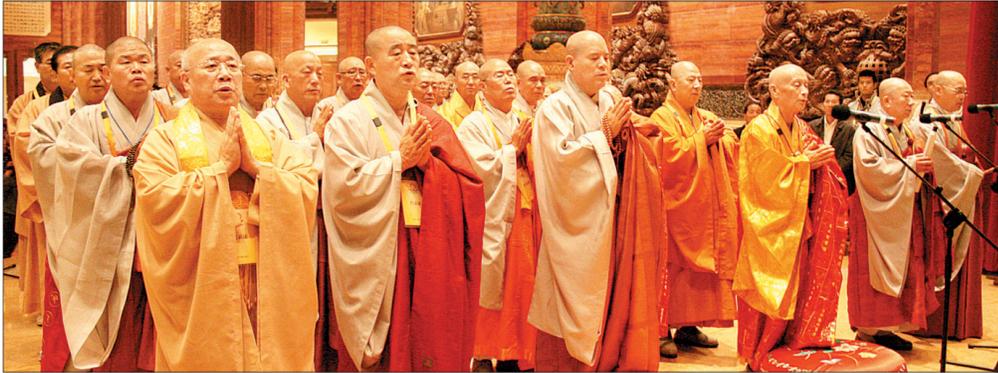


중국 우시 '제1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현장

# “한중일 불교가 동북아 평화·화합 위해 나서야”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중일 3국 불교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중국 쑤저우성(江蘇省) 우시시(無錫市) 영산 범궁에서 열린 제1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는 500여명의 3국 불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3국 불교지도자들은 세계평화기원 법요식을 비롯해 개막식, 학술회의, 환영·환송단찬,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갖고 우의 증진을 도모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은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상하이(上海)를 방문해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한중일 대회와 총무원장 스님의 상하이 방문을 동행 취재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중국 쑤저우성(江蘇省) 우시시(無錫市) 영산 범궁에서 열린 제1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는 500여명의 3국 불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은 세계평화기원 법요식 모습.

○…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한중일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은 북핵문제와 근자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 등 군사적·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에 있다”면서 “이러한 긴장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이를 위해 한중일 3국 불자들은 부처님의 자비의 가르침과 생명존중 사상에서 그 해답을 구해야 할 것”이라며 “한중일 동북아 3국 불교가 지역 평화와 인류의 화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중국 불교계를 대표한 추아인(傅印)스님(중국불교협회장)도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끊임없는 마찰과 충돌, 빈번한 재난 등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파괴하고 인류사회에 거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면서 “지금 이 시각 불교의 자비, 평등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더욱 진귀함을 절실하게 느낀다”며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일본 불교계 대표 고바라시즈쥬쇼(小林隆彰)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회 이사장은 “한중일 불교의 황금 유대야말로 세계평화의 기본이며 영원불멸의 도표(道標)”라면서 “제13차 회의가 세계평화의 새로운 원점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 세계평화법요식은 중국-한국-일본 대표단의 순서로 예불을 봉행한 후, 각각 대표(단장) 스님들이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 19일 우시시(無錫市) 영산 범궁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는 한국·일본·중국 불교계 대표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각

국 대표의 기조연설과 국가별로 3인씩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철스님은 ‘한류(韓流) 중류(中流) 일류(日流) 그리고 불류(佛流)’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한중일 상생(相生) 시대는 3국을 동시에 광장화(廣場化)하는 문화시장으로 단일화 되어 넓혀지고 있으며, 한류와 중류 그리고 일류가 서로 이웃 지역을 마음껏 넘나들면서 공류(公流)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철스님은 “3국의 지역공동체는 결속의 장으로 승화되고 있다”면서 “그 동질성의 저변에는 불교가 있으며, 동아시아의 문화적 지역적 통합의 힘은 불류(佛流)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원철스님은 3국 불교교류 확대방안도 제시했다. 스님은 “3개국의 청소년, 청년·대학생, 재가불교활동가들이 교류하고 마침내 사부대중이 교류하면서 미래 동아시아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통일의 기틀을 닦아야 한다”고 제안한 후 “미래의 동아시아 공동체는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우뚝 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쉬예정(學城)스님이 기조연설에서 “기자(箕子)가 수천 명의 유민을 이끌고 조선반도로 건너가 기자왕조(箕子王朝)를 건립해, 조선반도의 문명 진전을 촉진했다”고 주장해 한국불교 대표단의 항의를 받았다.

쉬예정 스님의 기조연설 후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 등은 현장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대책을 숙의했다. 그 결과 주제발표를 위해 등단한 능해스님(태고종 대외교류협력실장)이 유감을 표명



국제학술회의에서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원철스님은 ‘한류 중류 일류 그리고 불류’로 주제발표를 했다.

하고, 한국불교 대표단이 중국불교 대표단과 회동한 자리에서 공식 항의했다.

중국불교협회는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한 후 “서면을 통해 공식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불교 대표단은 “중국 측의 해명과 사과를 서면으로 받은 후,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 문화공연 관람을 마지막으로 제13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를 마친 한국 불교 대표단(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부회장 인공(태고종 총무원장)·정산(천태종 총무원장)스님과 혜정(진각종 통리원장), 사무총장 흥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19일 오후 9시30분(현지시각) 현지 숙소에서 수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회장 자승스님은 ‘변화

하는 중국불교’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중국불교가 빠른 속도로 양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느꼈다”면서 “중국불교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1700년 동안 수행전통을 면면히 계승해온 한국불교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동북아시아 평화 구축을 위해 북한 불교계의 한중일 대회 참여 가능성에 대해 스님은 “큰 틀에서는 동참하는 것이 좋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북한 사회가 갖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선 앞서 열린 학술회에서 중국 측이 주장한 ‘기자조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후 중국불교협회의 반응을 확인한 후 미흡할 경우 귀국 후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중국 우시=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 조계종 대표단 상하이 방문

### 용화선원서 교민불자 격려

○…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대표단은 20일 오전8시30분(현지시각) 우시를 출발해 상하이에 도착한 후 점심공양을 마치고 시내에 있는 용화선원을 방문했다. <사진> 상하이 용화정사는 교민불자들의 도량으로 주석하는 스님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신



행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에도 용화선원을 찾아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총무원장 스님은 “고국을 떠나 생활하고 있지만, 늘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신생활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상하이엑스포 한국관 관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0일 오후 2시30분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을 방문해 박은우 관장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시관을 돌아보았다. <사진> 총무원장 스님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전시 내용의 구성도 훌륭하다”면서 “국위선양을 위



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여러 스님들이 직접 한국관을 방문해 주시어 감사드린다”면서 엑스포 한국관의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 옥불사 참배, 상하이 불교교류

○… 총무원장 스님은 21일 오전 8시 상하이 시내에 있는 옥불사를 참배하는 것으로 중국 방문의 마지막 날을 보냈다. 대웅보전 참배 후 총무원장 스님은 옥불사 방장 주웨싱(覺星)스님(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상하이 불교협회 회장)을 만나 상호 의견을 나눴다. <사진> 주웨싱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스님들이 한중일 대회에 참가한 것을 기



쁘게 생각하며,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한중일 3국 불교의 황금유대가 더욱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 제3회 오봉산석굴암 단풍 음악제

## “자비의 나눔” 단풍, 음악, 행복을 나누어요

- ※ 일 시 \_ 불기2554년(2010년) 10월 31일(일) 오후 1시 30분
- ※ 장 소 \_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석굴암 트라 특설무대
- ※ 홈페이지 \_ www.sukgulam.com 한글 : 오봉산 석굴암 참조
- ※ 연락처 \_ 031) 826-3573, 017-503-3573



### 1부 식전행사

인사말  
축사  
자비의 나눔 전달식

### 2부 음악과 함께 행복나눔

사회 : 국악인 김종업  
출연자 : 국악방송 예술악단, 장사익, 김성녀, 섹스폰 연주...



### • 찾아 오시는 길

※차량운행 구파발에서 704번, 34번 의정부에서 34번 버스를 타고 오시면 석굴암 입구에서 셔틀버스 운행합니다. 오전 11시부터 합니다.  
※자비의 나눔 먹거리 장터도 준비 되어 있습니다.  
※날씨 관계로 두꺼운 옷 준비 하시기를 바랍니다.

### 3부 자비의 행복나눔

사랑의 이웃돕기 경품권 추첨 (주지스님 소장병풍 및 붓글씨외 다수...)

※제5회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돌기 자비의 쌀 모금 및 나눔으로 행복찾기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양주 석굴암 신도회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국악방송, 불교방송, 불교신문

여기, 석굴암에 모여 기쁨을 나누어요.

오봉산 석굴암 청정 나한기도도량! 자연의 향기를 나누는 단풍 음악제에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친년고찰 석굴암! 한 해의 수확을 거두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나와 내가 돌아 아닌 하나가 되어 “자비의 나눔 단풍음악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많고 청정한 산사의 기운으로 세속에서 사달린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가족과 이웃, 친구와 함께 한마당 축제에 참석하시어 행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오봉산 석굴암 주지 오봉 도일 추진회장 조길수, 진옥상의 신도회 임원일동 합장